

목양 칼럼

스페인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스페인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감사의 내용을 정리하여 목양칼럼에 올립니다.

1. 좋은 날씨 가운데 성지 순례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 사고나 낙오된 자 없이 모두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순례를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3. 성지 순례를 통해 평소 인사만 하고 지내던 성도님들과 한 가족처럼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사진 찍어주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4. 아침마다 보내 주신 목사님의 아침 목상을 통해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5.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사벨 여왕 같은 한 사람의 신앙의 열정이 스페인에서 이슬람을 완전히 축출하게 되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같은 항해사의 꿈을 후원하여 북음이 중남미와 미국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가우디 같은 조각가 한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담은 공원을 조성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게 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일교회에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아름다운 한 사람, 그 한 알의 밀이 되고 싶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6.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 1) 버스를 타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면서 걸어서 800km의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차타고 가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위해 잠시 축복 기도를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 야고보 성당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헌신한 야고보 사도를 보며 나도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2)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드린 수요예배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과 추억의 예배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예배였습니다. 가리비같은 나도 주님을 증거하는 가리비로 살게 하시는 성령충만한 예배였고, 성지순례의 정점이었습니다.
7. 많은 성당과 건축물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 1) 고트족과 이슬람의 성전이 지하로 깔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당시 통치자들의 신앙의 열정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북유럽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북음을 알지 못하던 나에게까지 십자가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큰 감동이었습니다.
 - 2) 교회를 설계한 건축가와 교회를 공사한 인부들이 설계도를 그리며, 또한 조각을 하며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만나는 기쁨이 지금 나같은 사람에게도 전달됨을 깊이 감사했습니다.
 - 3)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과거의 유물인 박물관이 되지 않고 오늘에도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헌신과 열정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 마지막 날 마드리드의 스페인 왕궁 앞 광장에서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338장)를 바이올린 연주와 함께 부른 감동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나의 순례의 길도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다짐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본당
	2부 예배	오전 9:30	본당
	3부 예배	오전 11:00	본당
	CCM 예배	오전 11:00	CCM실
수요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요일-토요일)	본당	
CCM 청년부 모임	오후 7:30 (금요일)	예일 카페	
영어 아침 기도회	오전 7:30 (매월 첫째 토요일)	CCM실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셋째 금요일)	각 목장별로	
제자훈련	각 동반자별로	각 동반자별로	
주일학교	영아유치부 (5세 이하)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 (1-6학년)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모임 오후 07:30 (금요일)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 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00-12:00	교육관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뉴욕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Y

VISION 2024 HEALING MARCH

뉴욕예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치유와 회복공동체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주일예배		제 32권 17호 주후 2024년 4월 28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홍정자목사	백에스라목사	우영주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요 4:24)		
예배 기원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		
찬송	249장		
기도	임병설집사	김근태장로	정수영장로
성경봉독	행(Ac.) 2:42-47		
찬양	할렐루야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성령 충만한 교회 김중훈목사		
찬송	338장		
봉헌	다같이		
봉헌찬송	630장		
예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감사/결단/축복)		
파송의말씀	인도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축도*	김중훈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예배 (F.M.A. 성경공부) 5월 1일 오후 8:30

- 기도: 김순영권사
- 말씀: 김중훈목사
- 다음주 기도: 신정애권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신영필집사
- 2부: 윤희주장로
- 3부: 지재홍장로

4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백진아집사
- 3부: 광정희권사, 오지아집사

-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시다.
- **수요예배:** F.M.A. 성경공부 '요한복음2'
- **신학세미나:** 오늘 오후 1:15, CCM실. 강사: 정성욱 박사 (영어로 진행됩니다)
- **4월 선교회 월례회:** 오늘 3부예배 후, 각 선교회별로
- **4월 성경 통독 및 다독자 보고:** 각 목장별로, 5/1(수)까지.
- **영어 아침 기도회:** 5월 4일(토) 오전 7시 30분, CCM실.
- **교역자 동정:** 오세준목사 휴가. (4/29 - 5/3)
- **유아세례 신청:** 어린이주일(5/5)에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는 가정은 부목사실로 신청
- **두란노 아버지학교 뉴욕/뉴저지 49기:** 5월 11일(토)-26(주일), 매주 토요일 및 마지막 주일
장소/본교회, 신청/5월 6일까지 (문의: 우영주목사)
- **실버클럽 봉사자 모집:** 재능기부(기타교실, 합창교실 등), 문의: 우영주 목사
- **2024 교회생활지침서:** 부목사실 수령
- **강단꽃 장식:** 차영재집사(어머니 추모)
사랑의 식탁: 박지숙권사(남편 생일)
- **식사기도 담당자 및 식당봉사**
 - 식사기도: 이번주: 오현섭장로 다음주: 한대영장로
 - 식당봉사: 이번주: 2마을 다음주: 3마을
- **5월 헌금위원**
 - 1부예배: 박진두집사 한문차집사 2부예배: 김선태집사 정수미란권사 김오신권사 박민애권사
 - 3부예배: 김영애권사 김정현권사 유희경권사 김동욱집사 박보라집사 전복희집사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
9:30am & 11am Services. Zoom QR Code:



교우동정

- **모친상** 박병규집사 (4/25, 한국에서)

새가족

- **이원기성도** (사랑선교회, Syosset, NY 11791)

행사예고

- 05/05(주일) 어린이주일
- 05/14(화)-16(목)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 05/17(금)-19(주일) CCM Spring Retreat
- 05/19(주일) 예일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주일

예수님의 기도(요 17:14-23)

본문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뜨겁고 간절한 기도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배신과 사람들의 조롱을 미리 아셨기에 괴로우셨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다. 오늘 본문은 겐세마네 동산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세 가지 간구를 보여준다.

1.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 1) 제자들은 세상에 있으나(In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은(Not of the World) 자들
 - 세상과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 예수님은 이를 위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길 간구하셨다.
 - 2)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가능하다.
 -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즉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이루어진다.
 -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이들을 미워한다.
 -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악에 빠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길 기도하셨다.
2. 이들을 하나되게 하옵소서
 - 1)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했다.
 -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 세상의 핍박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되어 이를 이겨내야 했다.
 - 하나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 머리의 인도하심 아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 2)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늘 갈등이 있었다.
 - 지체간에 서로 다름으로 인해 갈등하고 다투었다.
 - 우리 내면에 '나 자신'이 너무 많아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해 갈등한다.
 - 3) 나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때 우리는 하나될 수 있다.
3. 이들이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 1) 세상은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
 - 세상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본다
 - 세상은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 2)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세상으로(Into the World) 보내신다.
 -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됨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결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다. 그 간구는 힘이 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간구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기대어 거룩한 삶, 하나되는 삶, 그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인생가운데 역사하실 예수님을 기대하자.

방송설교

- KRB FM 87.7/94.3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